2013년 10월 (제 13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ONTENTS

PART 01 열린마당 03
선시시대 해양문화의 메카, 동삼동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다.

PART 02 기획전시 05
「해양보호구역 오륙도」 특별기획전

PART 03 소장품 이야기 07
조선통신사봉별시고 朝鮮通信史奉別詩稿

PART 04 박물관 사람들 09

PART 05 박물관 교육행사 10

PART 06 박물관 소식 11

PART 07 관람후기 12

바닷가에 대하여

정호승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잠자는 지구의 고요한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
지구 위를 걸어가는 새들의 작은 발소리를 듣고 싶을 때
새들과 함께 수평선 위로 걸어가고 싶을 때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지 못했을 때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을 때
모내기가 끝난 무논의 저수지 둑 위에서
자살한 어머니의 고무신 한 짝을 발견했을 때
바다에 뜬 보름달을 향해 촛불을 켜놓고 하염없이
두 손 모아 절을 하고 싶을 때
바닷가 기슭으로만 기슭으로만 끝없이 달려가고 싶을 때
누구나 자기만의 바닷가가 하나씩 있으면 좋다
자기만의 바닷가로 달려가 쓰러지는 게 좋다

정호승(鄭浩承, 1950.1.3~)

1973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첨성대' 당선, 1982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위령제' 당선
1989 제3회 소월시문학상, 2006년 제9회 한국가톨릭문학상, 2009년 제4회 지리산문학상, 2011년 제19회 공초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서울의 예수」, 「새벽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등이 있으며 시선집으로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있다.

동삼동에 터 잡은 국립해양박물관

열린마당

선시시대 해양문화의 메카, 동삼동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다.

부산 동삼동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하였다는 소식은 나로서는 뜻밖이었다. 신석기시대 해양문화를 연구 테마로 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 바다는 항상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에 아마도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이 장차 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 대한민국에 해양박물관이 진즉에 생겼어야 했다. 어찌되었건 이제나마 제대로 해양국가로서의 대한민국, 한민족의 해양문화를 조명하고 보여 줄 박물관이 생긴 것은 다행한 일이다. 마음 같아서는 개관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고 또 유물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실제로 동삼동 앞바다에 떠 있는 둥그스름한 건물을 마주한 것은 개관을 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였다. 벼르고 별러 부산행 KTX에 몸을 싣고 또 승용차를 얻어 타고 당도한 해양박물관은 바다 냄새 물씬 나는 그런 곳이었다. 해양박물관이니 당연한 일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자리한 동삼동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메카와도 같은 곳이다. 동삼동패총 때문이다. 동삼동패총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8천 년 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유적이다. 거기서 발굴을 통해 쏟아져 나온 다양한 신석기시대 유물들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다 자원을 얼마나 적절히 또 열심히 이용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빗금무늬나 흙띠를 맞 집어 도드라지게 만든 융기문토기 같은 질 그릇 뿐 아니라 그들이 잡아먹고 버린 조개들, 생선들, 육지동물들과 그것들을 잡기 위해 만든 낚싯바늘, 창, 작살 같은 도구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고고학적 보물들이었다. 바로 그런 동삼동패총 유적이 있는 곳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포에 있는 해양문화재연구소가 국립해양박물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까.

그것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금 까지 축적해 온 우리나라 해양문화에 대한 연구성과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난파선을 조사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수의 인양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태생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이 진력해야 할 방향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온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어느 시대 어느 특정 분야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이라는 테두리를 가이 없이 열어 두고 우리나라 해양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보고 배워가고 즐겨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범주에서의 해양환경과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가 또한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방문한 국립해양박물관은 많은 포석을 둔 점을 눈여겨보았다. 앞으로 많은 전시 자원을 확보하고 또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넓은 수장시설. 다소 산만한 듯 보이지만 확실히 열려있는 전시 공간들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외해에 연한 지정학적 위치는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의 무한한 확장과 활용 가치를 가능케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해양박물관의 무한 확장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박물관을 찾는 이들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물관마다 도슨트의 해설에 열심히 귀 기울여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아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부터 중년들 까지. 이제 드디어 진정으로 박물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점 특수를 지나 롱런하려면 이런 관람객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 관람 연령층의 변화는 그 만큼 전시 콘텐츠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화 되는 것은 자칫 관람객을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어 흥미를 잃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유수한 전문 박물관들은 이것이 기우임을 말해 준다. 서대문에 있는 농업박물관은 농업에 관한 매우 전문적이고 깊은 지식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아주 전문적인 것들이 전시 콘텐츠를 더욱 간결하고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의 전반적 전시는 더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번의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 같은 기획전시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굳이 OECD국가들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에 등록 박물관이 고작 670여 개소에 불과하다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통계조사 자료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실태에 대한 현주소를 잘 보여 준다. 혹자는 수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개월 만에 140만 명이 다녀간 것은 어째서인가. 나는 이런 폭발적인 박물관 관람에 대한 잠재수요가 이미 사회전반에 가득 차 있다고 본다. 다만 방문한 박물관을 다시 찾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위해서는 개별 박물관의 많은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큰 문화적 혜택을 받는 셈인데 앞으로 국립해양박물관으로부터의 혜택이 온 국민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차례 방문하여 살펴 본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시를 위해 고민하는 학예사들과 직원들의 열의가 가득 있기 때문이다.

김충배(토지주택박물관 차장)

외해로 열린 해양박물관 앞 바다.
멀리 오륙도가 보이며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보인다. 커다란 크루즈 선이 정박하기도 한다.

기획전시

「해양보호구역 오륙도」 특별기획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섬! – 오륙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오륙도를 만나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인 오륙도를 홍보하기 교육하고 위해 영남씨그랜트센터와 함께 국립해양박물관 4층에서 ‘해양보호구역 오륙도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가 우수한 오륙도의 보호가치를 알리고 해양보호구역 오륙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전시는 ‘오륙도의 생태’, ‘오륙도의 유래’, ‘오륙도의 사계’, ‘오륙도의 미래가치’ 등 4개의 테마로 영상과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망원경을 통해 오륙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꾸며질 예정이다.

전시기간 중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5시에는 재미있고 알기 쉬운 오륙도 이야기를 해양생태지도자가 들려줄 예정이다.

전시기간 2013년 10월 1일(화) ~ 10월 25일(금)
전시장소 국립해양박물관 4층
전시설명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5시
주 관 국립해양박물관 · 영남씨그랜트센터
주 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의 명소 오륙도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로 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으로, 배가 부산항으로 드나들 때 가장 먼저 반겨주고,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는 곳이 바로 오륙도이다. 오륙도의 일출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자갈치시장 등 “부산 자랑 10가지” 중 하나로, 힘차고 활기찬 부산을 상징한다. 또한 오륙도는 국민가요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륙도는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섬으로 기억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오륙도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ear)이란 생태계와 환경이 살아있어 보호 및 보존가치가 큰 바다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역을 말한다. 오륙도 및 주변 해역은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31일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오륙도의 자연환경

오륙도는 부산만의 입구에 있는 섬으로, 동경129° 07 ‘, 북위35° 05’에 위치하며, 면적 0.019㎢이다. 부산만으로 향하여 차례로 우삭도 · 수리섬 · 송곳섬 · 굴섬 · 등대섬의 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륙도는 아름다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부산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부유생물 94종, 저서생물 86종, 해조류 30종, 유영동물 56종, 조류 11종 등이 오륙도와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오륙도의 현황

등대지기가 있는 등대섬을 제외하면 모두 무인도이고 파도의 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해식애와 간헐적인 융기운동으로 생성된 계단상의 융기파식대(隆起波蝕臺)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광역시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명승 제24호로 지정되었다. 부산의 상징이자 경승지로 정기여객선은 없으나 승두말에서 운항되는 도선을 이용하여 왕래할 수 있다.

오륙도의 섬이름

- 방패섬 : 세찬 바람과 파도를 막아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솔섬 : 섬의 꼭대기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수리섬 : 갈매기를 사냥하기 위한 수리류가 많이 모여들어 붙여진 이름
- 송곳섬 : 섬의 모양이 뾰족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
- 굴섬 : 오륙도 중 가장 큰 섬으로 섬 가운데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등대섬 : 섬이 평평하여 밭섬으로 불렸으나 등대가 생긴 후 이름이 바뀜

김윤아(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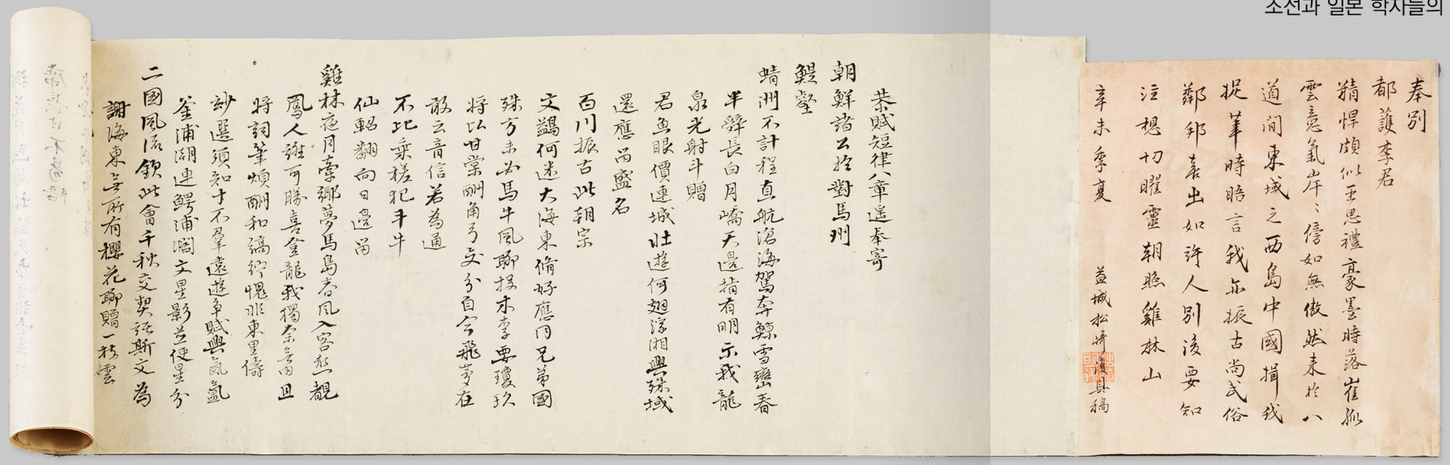
소장품 이야기

조선통신사봉별시고 朝鮮通信史奉別詩稿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을 대표하여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다. 정례적인 통신사의 방문이 시작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통신사는 총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였다. 일본은 당시 쇄국정책을 고집하여 다른 나라와의 소통은 거의 없었으며, 정식 외교 관계를 맺은 조선과 유일한 우호관계를 형성하였다. 조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새로운 막부의 권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우월한 조선의 문화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조선통신사 사절단은 매번 방문 때마다 중앙관리 3인 이하로 정사 · 부사 · 서장관을 임명하고 통역을 맡은 통사, 제술관, 사자관, 화원 등 총 300~5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되는 긴 여정에 오르게 된다. 사절단이 일본의 각 지역을 거쳐 갈 때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좋은 글씨나 시를 받아 간직하려고 하는 일본인이 많았다. 특히 일본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조선의 지식인들과 통역이 필요 없는 필담을 자주 나누었는데, 조선인들의 시와 글씨를 통해 교류를 나누면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유물은 1811년 일본을 방문하였던 조선통신사 일행 중 부사(副使) 이면구(李勉求(1757~1818년))가 일본 학자들과 필담을 나눈 두루마리 형태의 문집이다. 당시에도 막부(江湖幕府)에서 파견한 일본의 최고 유학자인 마츠자키 고도(松崎慊堂(1771~1884))가 이면구에게 이별을 아쉬워하며 봉별(奉別) 시를 직접 써서 전달하였다. 그 뒷부분에는 대마도의 우에키 아키라(植木晃)가 쓴 공부단진팔장요봉기(恭賦短津八章遙奉寄) 시문도 이어져 있다.

조선과 일본 학자들의 우정을 담은 《조선통신사봉별시고》는 3층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조선통신사봉별시고, 1811년, 종이, 143×28㎝

恭賦短律八章 遙奉寄朝鮮諸公於對馬洲

삼가 단율 8장을 지어 멀리 조선에서 온 제공에게 대마도에서 올림

鯷壑蜻洲不計程 제학(鯷壑; 조선)과 청주(蜻州; 일본)의 거리와 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直航滄海駕奔鯨 푸른 바다를 고래를 타고 곧장 달렸네
雪巒春半辭長白 눈 덮인 산에 봄이 반쯤 지났을 때 장백(長白)을 떠나
月嶠天邊指有明 달 비친 산길 하늘가에 명나라 가리키네
示我龍泉光射斗 나에게 용천검이 북두성을 쏘는 것을 보여주더니
贈君魚眼價連城 그대에게 연성(連城; 조나라 최고의 보물인 화씨의 구슬)과 같은 가치의 어안(魚眼; 찻물이 끓는 모습)을 주니
壯遊何翅浮湘興 장쾌한 유람은 어찌 상강에 부랑하는 흥취뿐이랴
殊域還應留盛名 다른 지역에서 도리어 응당 성대한 명성 남기리.
(중략)

奉別都護李君 도호 이군(李君; 이면구)과 이별하며

精悍頗似王思禮 날쌔고 용맹스러움은 왕사례(王思禮; 고구려 출신의 당나라 장수) 같은데
豪墨時落崔孤雲 때로는 최고운(崔孤雲; 신라의 대문장가인 최치원)처럼 호방한 필묵을 휘두르네
意氣岸岸傍如無 의기는 높고 높아 곁에 사람이 없는 듯하며
傲然來於八道間 담담하게 8도(八道) 사이에서 왔으며
東域之西島中國 동역의 서쪽 섬은 중국이다
揖我捉筆時晤言 나에게 인사하고 붓을 쥐고 마주보며 이야기하네
我亦振古尙武俗 나도 예로부터 무속(武俗)을 숭상하였으니
隣邦喜出如許人 이웃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온 것을 기뻐하네
別後要知注想切 이별한 뒤에 그리움이 간절할 것을 아니
曜靈朝照鷄林山 해가 아침마다 계림(鷄林; 조선)의 산을 비추리.

辛未季夏 益城松崎復具稿 신미년(1811년) 여름 익성에서 마츠자키 고도 씀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박물관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해양박물관 속 어린이박물관에서 물고기 옷을 입고 어린이들의 즐거움과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매직큐 마술사들입니다. 일단 국립해양박물관에 보이는 것들 모두가 마술사인 저희에게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박물관에 왔을 당시 건물 모양이 너무 독특해서 안내원 분에게 물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는 더 좋았습니다. (일단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몸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시원해진다고 말하면 아시겠어요? 바다속 풍경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배움의 터가 부산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요. 말 그대로 어린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어른들은 발도 들일 수 없는 곳!
참 신기하죠? '어른과 함께'가 아니면 아이들이 들어 올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이들과 함께'가 아니면 어른은 들어오지도 못 하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 마술사인 저희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안에서는 아이들이 바다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없애고 여러 바다 생물과 친해질 수 있게 하고 환경오염에 대해 잘 알려줍니다. (예쁜 누나들이 ^^)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일반 마술뿐 아니라, 해양을 주제로 한 해양 마술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해양과 해양오염에 대하여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년이 넘도록 어린이박물관에서 마술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모두 어린이박물관 45분 관람에 만족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제일 많은 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이었는데, 국립해양박물관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풍이나 현장학습으로 오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될 때면 박물관을 자주 구경하곤 합니다. 항상 봐오던 곳임에도 항상 새로운 느낌이 들어 공연하러 오는 저희도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머물러만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 하는 박물관입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많은 볼거리들로 시각을 사로잡습니다.
항상 발전을 준비하는 국립해양박물관처럼 저희 키즈 퍼포먼스팀도 머물러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해양과 환경오염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퍼포먼스팀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 깜깜한 바다속 해미래 탐사여행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심해탐사로봇 해미래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심해탐사과학기술의 발달과 심해생물, 심해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

공개문화강좌 | 해양가족 초청강연

2013년 11월 7일 ~ 2013년 11월 28일 매주 목요일 14:00~16:00 / 일반인 / 30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및 전화 접수 / 무료

박물관의 전시물 및 해양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해양문화 강연을 개최함으로서 해양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강좌프로그램

시 간	영 역	주 제	강 사
11월 7일(목)	해양민속	생태지킴이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좌혜경(제주발전연구원)
11월 14일(목)	해양탐험	남극의 자연환경과 우리나라의 활동	장순근(극지연구소)
11월 21일(목)	해양통신	천리한 위성 및 후속 위성의 개발	최성봉(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월 28일(목)	해양생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물 속 생물	정민민(국립수산과학원)

박물관 소식

2013 그린아시아포럼 개최 2013.9.10

골드만상 아시아지역 수상자 중심으로 공동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2012년 5월 발족한 그린아시아포럼이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첫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 국제 학술포럼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환경전문가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기후재난현황 등의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산문화체험 학습 '펀펀스쿨' 2013.9.13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펀펀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중학교 학생43명이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전시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전시해설 투어와 박물관 인기 콘텐츠인 4D영상관을 무료 탑승을 하였습니다.

추석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2013.9 18~20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송편 빚기', '전통 활 만들기'를 비롯해 민속놀이 체험행사, 가족영화 6편을 무료 상영했습니다. 흥겨운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놀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영화를 보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제3차 유물공개구입안내 2013.10.28.~11.1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16호)」 제4조에 의거하여 2013년도 제3차 유물공개구입을 합니다.
해양영토영역 독도와 동해, 해양문화영역 문화예술, 특별전 세계의 선박 발달사, 특별전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의 주제로 유물을 공개 구입하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그린아시아포럼 후기

지난 9월 10일, 부산 국립 해양박물관에서는 국내 환경전문가, 정부기관, 시민단체와 학생, 중국 · 러시아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일본 등의 골드만상 수상자, 환경운동가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기후 변화와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2013 그린 아시아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공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하여,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장 Von Hernandez 국장의 '동남아시아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 골드만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Syeda Rizwana Hasan의 '방글라데시 해안지역 기후변화 현황', 중국 환경운동가인 Lin Jianqiang의 '기후 변화와 오염에 기인한 중국의 환경운동', WWF JAPAN Shigeki Yasumura의 '황해 생태지역 보존 프로젝트 – 생태계와 지역 중심의 보존', 러시아 사할린 환경 감시 NGO 단체 의장인 Dmitny Lisitsyn의 '사할린 석유와 천연 가스 개발 사업의 사회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발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의 '아시아 지역 해양생태계 보호와 공유이익 증대를 위한 ODA 재정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일본 Shifeki Yasumura WWF JAPAN 황해생태지역 보존 프로젝트 리더의 발표였다.
ODA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촌 문제해결의 공동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이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역내 해양국가의 해양환경 분야 ODA 투자는 아시아 해양 및 연안의 생태적 중요성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한다. 이는 ODA가 공간적으로는 육상, 정책방향에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해양과 연안은 육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입 및 해양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수산자원 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어느 공간보다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나, 이를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아시아 해양 ODA 기금(가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WWF JAPAN의 Shigeki Yasumara의 황해 생태지역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한 · 중 · 일 세 나라가 각 국가 간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황해는 일본과 맞닿아 있는 바다가 아니지만, 황해로부터 얻는 많은 수산자원들을 일본에서 수입할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향하는 해류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황해 생태계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후원금 전액을 일본 업체인 파나소닉에서 부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연일 보도되는 언론 내용으로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나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그린 아시아 포럼을 통해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파괴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끝으로 본인의 이익, 혹은 자국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공공의 이익,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지켜나가야 할 해양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동받았으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김대근(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특별기획전

2013. 10. 1 tue ~ 10. 25 fri

국립해양박물관 4F

생명이 살아숨쉬는 섬!

해양보호구역

오륙도

五六島

주최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SEA GRANT 영남씨그랜트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www.seagrant.or.kr